유치원 홈피 5초면… 정보 줄줄 샌다

여교사·학부모 정보 빼내 SNS에 음란물 올린 10대 입건

유튜브서 해킹기법 배워
보안 허술 보육시설 타깃

'유튜브'에 떠도는 해킹 기법으로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내 카카오 스토리 등 SNS에 음란물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별도 해킹 프로그램 없이 특수문자를 조합해 입력하기만 하면 몇 초 안에 홈페이지에 접속,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정도로 보안 시스템이 허술한 보육시설이 적지 않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모·학생 정보 빼내는 데 5초 안걸려=광주서부경찰은 23일 광주지역 유치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교사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SNS에 음란물을 올리는가 하면, 초등학생 알몸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및 아동음란물유포 등)로 박모(16·경남 김해시 장유면)군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4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S유치원 홈페이지를 해킹, 여교사(22)와 학부모(30) 등 3명의 메일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들의 스마트폰 SNS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또 SNS 상에서 학부모의 딸 행세를 하며 다른 친척 동생(10)에게 접근, 알몸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다시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데이터베이스 검증 오류를 이용한 해킹 기법으로 범행했으며 특수문자 몇 개를 입력하는 것으로 유치원 사이트 '관리자 모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군은 "재미삼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보육시설 허술한 보안 의식, 불안=박군이 사용한 방법은 10년 전부터 소개된 해킹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에 특정한 문자를 조합해 넣으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다, 유튜브 등에서 관련 동영상이 적지 않아 쉽게 배울 수 있다. 박군도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고 기술을 배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보안 의식이 취약한데다, 비용 등을 이유로 허술하게 관리하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적지 않아 10년 전 기술로도 해킹 당하는 피해를 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군도 "해커들 사이에서 유치원이 잘 뚫린다(해킹이 잘 된다)고 소문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 업체가 학원, 유치원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상당수 홈페이지의 경우 이 같은 기초적 방법으로도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 개인 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제주 사망자도 진드기 때문

국내서 벌써 2명 숨져

국내에서 야생 진드기가 옮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지난 16일 숨진 강모(73·서귀포시 표선면)씨의 혈액에서 야생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과수원(밀감)을 경작하면서 소를 기르던 강씨는 지난 2일 처음 발열·오한·근육통을 호소했다. 이후 6일에는 체온이 39도까지 오르고 설사·구토 증세까지 겹쳐 입원한 뒤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강 씨는 평소 과수원과 농장에서 작업하며 진드기에 자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강씨의 혈액을 채취, 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이날 분리된 바이러스를 SFTS바이러스로 확진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SFTS 사망자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사망한 63세 강원도 여성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SFTS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조언이다.

우선 야외활동을 할 때 긴 팔·바지 옷을 입고 양말 등을 신어 피부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기피제를 뿌려 진드기를 쫓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풀밭 위에 옷을 벗은 채 눕거나 용변을 보지 않고, 풀밭에서 사용한 돗자리도 세척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나원참 〈8823〉 김종두

"말 못 알아 듣는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경찰, 현장소장 조사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폭행당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A씨(36·우즈베키스탄)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나주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7층에서 현장소장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에게 맞았다'는 A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사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23일 중흥동 대형빌딩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쓰비시 손배소 첫 심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애초 계획대로 24일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소송 관련 기록을 송달받았다는 피고 미쓰비시 측의 답변서가 이날 접수됨에 따라 재판부는 24일 오전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은 재판을 지켜본 뒤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

학교 주변 불법 유흥주점 등 철퇴

광주경찰, 163곳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한달 간 학교 주변과 주택가의 불법 풍속업소 16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곳은 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있었다.

유형별로는 게임장 35곳, 키스방 등 신 변종업소 28곳,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일반음식점 28곳,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27곳,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당구장 18곳과 PC방 13곳, 법령을 어긴 유흥주점 12곳,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2곳 등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구더기 젓갈'… 이런걸 먹으라고?

목포해경, 불법 제조·판매 19명 적발

도무지 믿고 먹을 것이 없다. 연일 전해지는 '먹거리 장난' 소식에 입맛까지 사라질 지경이다.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구더기가 가득한 젓갈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23일 비위생시설에서 구더기 젓갈을 만든 뒤 시중에 유통·판매한 정모(62·신안군 임자면)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창고를 빌려 새우젓·황석어젓 등 숙성용 젓갈 6만2000ℓ (시가 780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는 쓰레기가 가득한 폐쇄된 창고에서 위생·냉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각종 젓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김모(56)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평균 1만ℓ의 불량 젓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만들어 고무용기·녹슨 드럼통(200ℓ 짜리) 안에 보관해 둔 젓갈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등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구더기 젓갈(200ℓ 드럼통 기준 500개)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후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신안군 8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수산식품 제조·판매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초등생 제자와 사랑은 억지"

쌍나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 /연합뉴스